한국문학논총 제 26 집(2000.6) pp. 27~55

야담 연구에서의 자료의 문제*

정 명 기**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야담 자료집 수집의 필요성과 그 의미 - '꼼꼼한 자료 읽기'를 제창한다
3. 야담집 주해·번역의 문제점
4. 맺는 말

1. 들어가는 말

어느 분야의 경우이든 마찬가지이겠지만, 연구의 대상이 되는 자료들의 진정한 값어치는 그 자료가 지니고 있는 문학적 의미를 연구자들이 제대로 해석해 낼 때 확보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특히 최근 들어 연구의 분위기와 활성화 정도에서 예전의 활력을 소진(?)한 채 머뭇거리는 것으로조차 보이는 야담문학 연구의 경우에 더욱 긴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곧 야담문학의 경우, 엄밀히 말하면 어느 면 그 자체의 문학성 규명이라든가 하는 본격적인 연구[1]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그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 이 논문은 2000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연구비에 의해서 이루어졌음.
** 원광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1) 최근에 제출된 이강옥 선생의 「야담의 속이야기와 등장 인물의 자기 경험 진술」(『고전문학연구』13집, 1998.6, 한국고전문학회.)은 야담의 형태미학적 특성을 꼼꼼히 밝

아닌가 하는 회의조차 갖게 한다. 이런 느낌은 유독 필자만이 갖는 편벽되고 한정된 생각이 아니라 우리 야담문학 연구가들이 공통되게 갖고 있는 것[2]이라 하겠다.

임형택·조희웅 선생에 의해 주도된 초창기 야담의 연구[3]에서는 여러 어려움으로 해서 많은 수의 자료들(특히 이본에 대한 본격적인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을 검토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다[4]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연구 성과의 경우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그 功 못지 않게 過 또한 아울러 지니고 있으리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필자는 야담문학에서 자료가 갖는 의미를, 그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았던 몇몇 자료들[5]을 대상으로 하여 기왕의 몇몇 잘못된 주

혀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2) 이에 대해서는 임완혁 선생 또한 「『계서야담』의 서술방식에 대한 일 고찰」, 『한국한문학연구』 19집, (한국한문학회,1996.11)에서 "이러한 연구는 일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예전의 집중되었던 열정이나 성과에 비해, 지금의 상황은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접어든 느낌마저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새로운 연구 방법의 부재를 들 수 있다. 내용 중심의 연구가 지니는 매너리즘을 극복하지 못하고 새로운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한 바 있다.

3) 임형택, 「18,9세기 이야기꾼과 소설의 발달」, 『한국학논집』2집, (계명대 한국학연구소, 1975.) **『고전문학을 찾아서』, (문학과 지성사,1976)에 재수록됨.
임형택, 「漢文短篇 형성과정에서의 講談師」,『한국소설문학의 탐구』,(일조각,1978.)
임형택, 「漢文短篇과 講談師」, 『창작과 비평』13권 3호,(창작과 비평사,1978.가을)
임형택, 「실학파문학과 漢文短篇」, 『한국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1981.)
조희웅, 『조선후기문헌설화의 연구』,(형설출판사,1982.) 등을 그 대표적인 성과로 들 수 있다.

4) 이에 대해 임형택 선생은 최근 그 고충의 일단을 『기문총화』를 대상으로 한 기왕의 견해를 수정하면서 밝힌 바 있다. 참고삼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필자는 전에 『이조한문단편집』의 출전 해제에서 『기문총화』의 편저자를 '노론계의 파평 윤씨'로 추정한 바 있었다. 이 추정은 유감스럽게도 잘못 짚은 것임을 최근에 확인하게 되었다. --- 필자가 『기문총화』로서 처음 접한 것은 구장서각본이었다. 『이조한문단편집』을 편찬할 당시 필자의 『기문총화』에 대한 지식은 이것에 한정되어 있었다."(이우성편 『기문총화』의 2종의 해제, 7쪽.(서울 아세아문화사,1990.)

5) 정명기, 「해제 및 자료 『계서잡록』 卷之利」, 『열상고전연구』10집,(열상고전연구회, 1997. 12.)
정명기, 「야담연구를 위한 한 제언」『열상고전연구』10집,(열상고전연구회,1997.12.)

장이라든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논의를 제한된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어보고자 한다. 그러나 필자 또한 앞선 연구자들처럼 전래하는 야담집 자료의 전부[6]를 입수·검토치 못했다는 점에서 이 논의 또한 나름의 한계를 분명히 지니고 있다는 점을 먼저 밝혀두고, 논의를 시작하려 한다.

앞서 밝힌 야담문학 연구에서의 정체성(停滯性)의 극복과 아울러 본격적인 야담문학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연구자들이 우선적으로 고민, 해결하여 할 방법 가운데 하나로 필자는 우선 해당 자료군의 폭넓은 수집과 아울러 이들 자료군들의 대비·검토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해두고, 논의를 전개해갈까 한다.

2. 야담 자료집 수집의 필요성과 그 의미 - '꼼꼼한 자료 읽기'를 제창한다.

야담문학의 경우, 김기동[7], 이우성[8], 소재영·박용식[9], 필자[10]에 의하여 그

정명기, 「야담집의 간행과 전승양상」-『계서잡록』계를 중심으로,『설화문학연구』상,(단국대 출판부,1998.)
정명기, 「『청야담수』의 원천과 변이양상 연구」, 『조선학보』170호,(조선학회, 1999.1)

6) 필자가 현재까지 입수, 검토한 야담집의 목록을 뒤에 따로 붙여 참조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록화 작업조차 우리 야담문학계는 아직 변변히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런 점에서 보더라도 야담연구는 아직 초보적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

7) 김기동 편,『韓國 文獻說話 全集』 전 10권,(태학사,1981.)

8) 이우성,『東野類輯』 外 二種,(아세아문화사,1985.)
이우성,『靑邱野談』 上·下,(아세아문화사,1985.)
이우성,『雪橋集』 下卷 中 『雪橋漫錄』,(아세아문화사,1986.)
이우성,『記聞叢話』 外 二種,(아세아문화사,1990.)
이우성,『東稗洛誦』 外 五種,(아세아문화사,1990.)

9) 소재영·박용식편,『韓國 野談史話 集成』 전 5권,(태동,1989.)

10) 정명기 편,『韓國 野談資料 集成』 一次分 전 13권,(계명문화사,1987.)
정명기 편,『韓國 野談資料 集成』 二次分 전 11권,(계명문화사,1992.)
정명기 편,原本 『東野彙輯』 上·下,(보고사,1992.)

간 몇 차례에 걸쳐 그 자료집의 일부나마 엮어진 바 있다. 이런 작업으로 인하여 많은 자료들이 취합되어 야담문학의 실제적 면모가 어느 정도 드러나기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모든 야담 자료들을 우리 연구자들이 보게 된 것은 아니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아직도 보고, 발굴되지 아니한 많은 종류의 야담집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필자 또한 알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미 소개된 자료들마저 그동안 제대로 된 검토와 평가를 받지 못함으로 해서 그 각각의 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비록 『기문총화』계로 국한된 논의라는 한계를 지니고는 있으나, 김준형의 "『기문총화』계의 문헌학적 연구"[11]는 우리 야담문학 연구가 이제까지의 성과와는 준별될 한 단계 높은 성과를 예비하기 위해서라도 한시바삐 성취해 내었어야 할 과제를 성실히 수행해 낸 좋은 성과라 할 수 있다.

이제 몇몇 야담집의 경우를 통하여 야담연구에서 '꼼꼼한 자료 읽기'가 지닌 문제의 중요성을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가) 먼저 초기 야담집인 『天倪錄』의 자료를 생각해 보자. 현재까지 알려진 『천예록』의 이본으로는 천리대본 『천예록』[12](61화)·김영복본(44화)과 함께 다음 몇 종의 방사(放射) 자료집, 곧 천리대본 『어우야담』 소재 『천예록초』, 버클리대본 『해동이적』(내제 : 『천예록초』), 동양문고본 『고금소총』[13] 등의 5종을 들 수 있다. 이 자료집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다른 자료집들의 경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신성·김동욱·진재교 선생등의 작업이 그것인데, 먼저 이신성 선생의 『천예록연구』[14]는 이 자료에 대한 훌륭한 학적 성과임에 틀림없지만, 아쉽게도 이 논의에서는 연구대본으로 대곡삼번(大谷森繁) 선생에 의해 일찍이 소개된 천리대본 『천예록』만을 삼고

11)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1998.2.

12) 이 자료는 김동욱 선생에 의해 한 차례 번역이 이루어져 쉽게 참조할 만하다. 『天倪錄』,(명문당,1995.) 한편 이 자료에 결락된 1화 "磐異山路迷逢眞" 또한 김동욱에 의해 뒷날 계간 『문헌과 해석』 2호,(태학사, 1998.봄)에 그 역문과 원문이 186~198쪽에 걸쳐 수록된 바 있다.

13) 이 자료는 정용수 선생에 의하여 번역본의 형태로 간행되어 쉽게 참조할 만하다. 『고금소총·명엽지해』,(국학자료원,1998.)이 그것이다.

14) (서울,보고사,1994)

있다. 『천예록』의 경우, 2화를 한데 묶는 가운데 평(評)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으니 만큼, 이 성과에서 다른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천예록』이 그의 주장처럼 61화가 아니라, 62화로 이루어졌으리라는 최소한의 사실만이라도 지적되었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한편 김동욱·진재교 선생의 작업[15]은 이신성 선생의 작업 가운데서 특히 그 편자와 편찬연대에 대한 오류의 바로잡음 【이상우(李商雨: 1621 ~ 1685) → 임방(任埅: 1640 ~ 1724)】 과 아울러 새롭게 발굴된 김영복본 『천예록』의 존재를 통하여, 어떠한 이유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천리대본에서 누락되었던, 『천예록』 1화의 면모를 분명히 밝혀낸 것은 『천예록』의 총체적 면모를 이해하는 데 일정한 도움이 된 것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하여 『천예록』이 62화로 이루어진 야담집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밝혀내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천예록초』(天倪錄抄)라는 제목 또는 전혀 별개의 자료 속에 단편적으로 전하는 자료들의 면모를 볼 때, 『천예록』이라는 자료를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하고 말 일은 아니라는 데에 있다. 그것은 천리대본 소장 『어우야담』과 버클리대본 소장 『해동이적』, 동양문고본 『고금소총』의 경우를 통하여 드러난다. 곧 천리대본 『어우야담』의 경우, 『天倪錄抄』라는 제목으로 『어우야담』(3권 3책본) 아래 21화가 수록되어 있고, 버클리대본 『해동이적』(1책본) 또한 그 내제(內題)를 분명히 『천예록초』로 밝히는 가운데, 30화가 수록되어 있으며, 또한 총 54화로 이루어진 동양문고본 『고금소총』 가운데 47화 이하 54화까지의 8화의 경우도 앞의 두 자료의 경우와 같이 『천예록』을 원거(原據) 문헌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이 본의 경우, 해당 자료 옆에 '出天倪錄'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런 언명은 이들 자료들이 『천예록』과 일정 정도 관련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징표라 하겠는데,

15) 김동욱 2, 「『天倪錄』의 編著者 辨證」,반교어문학회 70차 발표회 요지,1994.4.
김동욱 2, 「『天倪錄』硏究」,『반교어문연구』5집,(반교어문연구회,1994.)
김동욱 2, 「『天倪錄』의 評曰을 통해 본 任埅의 사상,『어문학연구』3집,(상명여대 어문학연구소,1995.)
김동욱 2, 「김영복 소장본 『천예록』에 실린 「지리산노봉진」에 대하여」,『문헌과 해석』2호,(태학사,1998.봄)
진재교, 「『天倪錄』의 작자와 저작년대」,『서지학보』17호,(한국서지학회,1996.1.)

그러나 현전하는 『천예록』의 이본들 가운데는 이들 세 자료집에서 드러나는 이질적이기까지 한 이와같은 이야기들을 아울러 갖고 있는 자료집은 없다는 데에 논의의 어려움이 있다. 이것을 다루기에 앞서서 여기서는 이들 자료들의 상관관계를 알기 쉽게 드러내기 위해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다음 도표 참조)

이러한 현상은 원 『천예록』이라는 자료집의 실상이 어떠한 것인가를 파악하는 데에 한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곧 임방(1640 ~ 1724)이 엮은 원 『천예록』의 면모는 어떠한 것인가? 『천예록』 또는 『천예록초』라는 제목을 가진 자료들에서 나타나는, 임방과 거의 동시대를 살다간 것으로 생각되는 홍만종(洪萬宗 : 1643 ~1725)의 『旬藥志諧』(1678년?) 소재 이야기의 출현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요인은 무엇인가? 등의 매우 복잡 미묘한 문제가 얽혀 있는 사항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은 그리 쉽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는 하더라도, 그 가능성은 다음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듯하다.

> 첫째, 임방이 오늘날 우리들이 보는 62화(現傳)로 된 『천예록』을 편찬하였다.
>
> 둘째, 임방이 몇 화인지는 모르지만, 애초부터 『명엽지해』에서 이야기를 부분적으로 차용하고, 자신이 견문한 이야기들을 그것과 한데 묶는 가운데 현재 완전하게 전하지 않는 『천예록』을 편찬하였다.
>
> 셋째, 후대인 가운데 누군가가 『천예록』의 인기에 편승하여 원 『천예록』의 일부 내용과 『명엽지해』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별본(別本) 『천예록』을 편찬하였다.

이들 가능성 가운데 어느 것이 『천예록』의 실제적 면모를 밝히는 데 가장 근접하는 것인지를 따지는 작업은 현재의 여러 여건으로 인해 어려운 점 또한 사실이다. 임방과 홍만종, 나아가 이름모를 후대인에 얽힌 많은 자료라든가, 현전하는 『천예록』 이본군의 내용, 형태에 대한 정치한 탐구를 통하여 이 문제는 보다 정확한 실체를 드러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문제를 확실히 규명할 정보를 필자 또한 분명히 갖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필자 나름의 이에 대한 견해를 피력한다면, 필자는 위 가능성 가운데 두 번째 가능성에 그 무게를 두고 싶다. 그 이유로 다음과 같은 몇몇 논거를 들 수 있다. 첫째, 임방이 『천예록』을 엮었다는 사실은 김동욱·진재교 선생등이 정확히 천착하고 있듯

이 여러 정황으로 보아 결코 부인할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그가 어떤 체제와 형식으로 위의 자료집을 엮은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정보가 그의 문집 내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 둘째, 위에서 든 세 자료집의 경우 분명히 『천예록』에서 전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데도 현전하는 『천예록』에서는 그와 같은 성격의 이야기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 셋째, 야담집의 일반적 편찬 과정을 유념할 때, 편찬자가 오로지 독자적으로 자신의 견문에만 의거하여 자료집을 엮어낸 경우는 거의 보고된 바 없다는 점, 곧 전대문헌으로부터의 일정한 차용·전재 아래 해당 자료집들을 엮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말한다. 넷째, 홍만종의 『명엽지해』의 편찬 연대가 『천예록』에 비하여 분명히 앞서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임방이 홍만종의 『명엽지해』를 차용·전재하는 가운데 『천예록』을 편찬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천예록』은 오늘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62화만으로 이루어진 자료집이 아니라, 이에 덧붙여 이들 세 자료집에서 출현하는 『명엽지해』 소재 이야기 13화과 『기문총화』 소재 이야기 1화, 그리고 현재로서는 그 출전이 미상인 7화를 포함하여 도합 최소로 잡아도 83화 이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런 체제로 된 『천예록』이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음을 상정하고는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뒷날의 과제로 미루어두고, 여기서는 다만 『고금소총』소재 4화의 내용만을 제시하여 두는 것으로 책임을 면할까 한다.

제 51 화. 浮談天子

鰲城李相公 好詼諧 嘗晩赴備局之坐 一相臣以其來至責之 鰲城曰 吾行到鍾樓街上 適遇僧人 與宦者相鬪 僧人執宦者之陽莖 宦者執僧人之頭髮 甚是奇觀 觀此遲留以致日晩 衆皆發笑 盖其時事皆尙許僞 故以此諷之// 玄谷趙公年雖差少於公 亦善詼諧 每與鰲城相酬對 玄谷稱鰲城曰 浮談天子 一日鰲城受議政祿俸分諸妻妾 謂玄谷曰 吾以妻妾皆附祿矣 夫人附之司果 妾附之司勇 玄谷對曰 然則大監空手而立矣 鰲城大笑// 余外祖考仕隱公爲江原監司時 玄谷爲襄陽府使 外祖巡到 謂玄谷曰 公見金剛山否 玄谷曰 恨不於莅任初卽往 今已居官數年 不可見也 笑問其故曰 淮陽僻居官數年 飽喫珍鮭腰腹彭亨之後始入金剛 到險絶處 使及唱背負而通引前導 其高腹貼于背上 放屁數聲 通引謂是及唱之所放 顧叱曰 此犬子 何敢發此聲 及唱曰 汝若不知 何不閉口而行耶 淮陽飽喫大孱 而亦不得言己之所放 盖莅任之初 腹低身輕 可以游山 居官稍久則腹高體胖 游山必遭此辱 故不得生意耳 其言盖是應口做出 相與大笑而罷//

玄谷老後 超拜嘉善 客有訪之者 謂曰 庭宇幽淨 公何不養鶴 玄谷熟視曰 嘉善官例 不得養鶴 客問其故 則曰 昔有一嘉善官養鶴者 憑欄而睡 鶴見其腦後金貫子 謂是蟲也 以長觜喙之 觜入于左腦 出于右腦 由是 嘉善者不得養鶴 客初聞而信之 歸而思之 是戲謔也 爲之發笑//(표 //는 삽화 단위를 가리킨다.)

제 52 화. 妄發匠人

宣廟朝有趙元範者 善妄發 到處發言 皆是妄發(俗以言語做錯誤犯忌諱,謂之妄發) 時人號之曰 妄發匠人 嘗與客對坐 招呼婢子而久不應 客曰 君何其無威於婢僕也 趙曰 吾則如此 而吾大人則甚嚴 每一開口 奴僕等輒流矢滑滑 客笑曰 尊大人頻含奴婢之矢 豈堪其臭穢耶// 趙又嘗行女婚 親切僧人送紙以助 後僧人來謁 趙謝之曰 吾家開張女婚 不小之物將入 無以充之 汝之扶助紙 用之於要光 極可喜也 盖扶助紙者俗言腎囊及陽莖之謂也 要光者俗言溺器之謂也 聞者絶倒// 趙家又嘗要卜者誦經祈禱 此際友人送書借屛風 趙作答書曰 室人惑於盲人 方作可笑事 畢後當送 友人見書 捧腹來見 趙問曰 所謂可笑事 何事也 趙答曰 此不過陰陽之事耳 友人益復絶倒// 鰲城飽聞趙之善妄發 嘗因其來訪 半日相話而終不妄發 鰲城曰 人言君善妄發 今與君言 一不妄發 無乃傳之者誤耶 趙曰 吾豈嘗妄發 不過儕友以妄發誤做吾身耳 鰲城笑曰 君果名不虛得吏曹每以趙元範擬望 宣廟見其名 必發天笑而落點 盖其妄發亦復上徹九重云//

評曰 按前史淳于髡東方朔 皆以滑稽詼諧名 而有無實不根之貶 今鰲城玄谷俱魁傑偉人而亦喜 此習 抑或玩世游戲者耶 然皆豈非滑稽之雄也哉 至若趙元範之妄發 亦可謂天授非人 以匠得名 誠不偶耳 宜乎談苑之笑 至今不絶

제 53 화. 淫婦奸巧

昔有一村女 方與間夫入室 本夫自外歸房 只一門無以體避 時政日寒 女卽以大盆 迎覆其夫之頭面曰 何耐寒苦 何耐寒苦 顧安得大帽 如此盆着汝頭上移時玩戲 其夫謂其妻愛渠而作此戲 笑而不禁 間夫乘此走逸// 又有一村女 亦與間夫入室 本夫自外而至 女卽迎 以兩手 提其夫之兩耳 出高擧擺搖 推却而行曰 汝何往乎 汝何往乎 其夫謂其妻獻嬌 而有此戲 一任其提弄 左右搖頭 却步退後 且行且答曰 列灰而往矣 列灰而往矣(列草燒田,俗謂之列灰) 若是者良久 至門外數十步 間夫乃得乘此走逸//

제 54 화. 蠢夫癡騃

昔有一村夫 與一頑僧相親 到家則輒留連累日 僧因與其妻奸 一日其夫太醉沈睡 僧乃以剃刀盡髡其髮 因自脫其僧衣巾着之 渠卽擾着主人之衣笠 持箒掃庭 其夫醉醒起坐 自視而怪之曰 吾何以忽爲僧耶 僧呵之曰 汝本僧也 何云忽爲僧耶 汝來旣久 今可還上汝寺 其夫卽答曰然 便起出門向寺 心不能無疑 回顧問曰 君是我耶 我是君耶 僧倚箒怒叱之曰 汝夢未醒耶 何以不辨爾我耶 勿復雜談 速還寺 其夫遂向寺而去// 又有一士人 與村婦潛通 携到林藪間 方押之際 其夫負薪自山下來 與之相値 士人因據其女 以女之裙掩女面 呵叱其夫曰 兩班御女之處 常漢何不速避 其夫疾走而過 良久女還家 其夫笑謂之曰 吾於向

者見一可笑底事 女問何事 夫曰 隣居某兩班 與何樣女人押於林間矣 女謂之曰 勿復爲如此之言 常漢妄洩兩班之事 見過則不可說也 夫曰 此漢豈其遇哉 敢爲如此之言耶

評曰 諺言婦人多姦 一步九謀 今見覆盆提耳之謀 倉卒生姦 機警無比 諺所云豈不信哉 村夫讓家與僧而自忘其身 樵氓見人奸妻而不自覺察 其被奪上寺見偸欲諱 竝是紙癡 聞者絶倒 而亦莫非其妻之奸也 淫婦之要有如是夫

화번	자료 제목	천리대	김영복	어우	이적	소총	명엽	비고
1	智異山路迷逢眞	1(탈락)	1		28			
2	關東道遭雨登仙	2 飄然之像	2					
3	鄭北窓遠見奴面	3 千古聳聽	3		29			
4	尹世平遙哭妹喪	4 明見萬里	4		30			
5	俗離山土窟坐化	5	5					
6	金剛路兵使夢感	6	6					
7	閻羅王托求新袍	7 然疑之間	7					
8	菩薩佛放觀幽獄	8	8					
9	土亭漁村免海溢	9 道不可量	9					
10	樵氓海山脫水災	10 先見之名	10	18				
11	臨場屋枯骸冥報	11	11					
12	捿山寺老翁陰佑	12 感應之極	12					
13	西平鄕族點萬名	13 竦然之瞿	13		1			
14	任實士人領二卒	14 惑世之學	14					
15	一島魚肉臥家中	15 特異之術	15		2			
16	萬騎蹂躪坐路上	16 安閑之學	16					
17	掃雪因窺玉簫仙	17 奇哉快哉	17		27			
18	簪桂重逢一朶紅	18 第一美事	18					
19	高城鄕叟病化魚	19 半信半疑	19		3			
20	昇平族人老作猪	20 可怪可怪	20					
21	御史巾幗登筵上	21 使人代慚	21		4	49		巾幗御使
22	提督裸裎出櫃中	22 若撻于市	22		5	50		櫃中提督
23	沈進士行怪辭花	23 萬古放(方?)正	23			47		執拗辭花
24	金秀才謀拙折玉	24 天下八朔	24			48		謀出折玉
25	成進士悍妻杖脚	25 人皆欲教						
26	禹兵使妬婦割脣	26 使人氣憤						
27	笞頑孫數其妄錯	27						
28	招後裔教以眞的	28						
29	生日臨要救飢腸	29	25					
30	忌辰會羞攝弊衣	30	26					

화번	자료 제목	천리대	김영복	어우	이적	소총	명엽	비고
31	出饌對喫活小兒	31	27					
32	操文祭告救一村	32	28					
33	愼學士邀赴講書	33 此則擇(澤?)堂所記 而題曰崔生遇鬼錄						
34	孟道人携遊和詩	34						
35	士人家老嫗作魘	35	29					
36	一門宴頑童爲癘	36	30					
37	李秀才借宅見怪	37	31		6			
38	崔僉使僑舍逐魘	38	32					
39	故相第蛇魂作禍	39						
40	武人家蟒妖化子	40			13			
41	鄭公使權生傳書	41	33					
42	元令見許相請簡	42	34					
43	毁毁影幀終見報	43						
44	議黜院享卽被禍	44		16				
45	士人逢湖南死師	45	35					
46	武卒見安家亡父	46	36					
47	背負妖狐惜見放	47	37		14			
48	手執怪狸恨開握	48	38					
49	廣寒樓靈巫惑倅	49	39		22			
50	龍山江神祀感子	50	40					
51	泰仁路鏑射猘僧	51		5	15			
52	露梁津鎧打勢奴	52		6	16			
53	潦澤裡得萬金貲	53	41					
54	海島中拾三斛珠	54	42		18			
55	關北倅劒擊臭雪	55			17			
56	別害鎭拳逐三鬼	56						
57	送使於宰臣定廟基	57		1	23			무제
58	見夢士人除妖賊	58		2	24			
59	刀代珠扇爲正室	59	43		25			
60	腋挾腐肉得完節	60	44					
61	獨守空齋擢上第	61		3	26			獨宿空齋于
62	妄入內苑塑顯官	62		4				
63	婦說古談			7	19		33	
64	姑責翻身			8			34	
65	命奴推齒			9	20		35	
66	輕侮壞慚			10	11		48	
67	苦請褫聲			11	12		57	
68	請加四吹			12			61	

화번	자료 제목	천리대	김영복	어우	이적	소총	명엽	비고
69	厠間譫語			13	10		66	
70	輪行時令			14			67	
71	去滓生男			15				미상
72	墮水赴衙			17			44	
73	氓作鵂鳴			19			38	
74	忘祥愧從			20			41	
75	面取油蜜				7		70	
76	換馬被汚				8			미상
77	奔喪卜妾				9			미상
78	添字誤下				21		43	
79	權적이야기			21				기문3-50
80	浮談天子					51		미상
81	妄發匠人					52		미상
82	淫婦奸巧					53		미상
83	蠢夫癡駭					54		미상

나) 『雜記古談』(일명 『파적록』 또는 『난실만필』)에 대한 연구는 진재교·정하영 선생[16] 등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다. 진재교 선생은 그 편자와 편찬연대를 밝혀 이 자료가 『천예록』을 엮은 任堕의 손자인 임매(任邁 : 1711 ~ 1779)에 의하여 이루어진 자료임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야담집이 특정한 가문을 중심으로 하여 향유, 창작, 전승되어 왔음을 증거해내는 성과[17]를 거두게 되었다. 한편 정하영선생은 『잡기고담』 가운데 <도제상(盜宰相) 이야기>를 대상으로 해당 작품의 성격과 의미를 밝혀낸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자들 가운데 아무도 『잡기고담』의 이본에 대해 일정한 관심을 쏟은 이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이 자료집의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점만으로 이들 연구자들을 일방적

16) 진재교, 「『雜記古談』 著作年代와 作者에 대하여」,『서지학보』12호,(서지학회,1994.3.)
진재교, 「『잡기고담』 연구」,『한국의 경학과 한문학』,(태학사,1996.)
정하영, 「의적설화 <盜宰相>考」,한국고전문학회 98년 하계학술발표대회,(세명대학교,1998.8.6~7)

17) 이러한 선상에서 최근에 배출된 성과로 우리는 김영진 선생의 「조선후기 사대부의 야담 창작과 향유의 일 양상」,『어문논집』 37집,(안암어문학회,1998)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으로 매도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담 자료집의 이본들에 대하여는 우리 연구자들이 그간 무심히 대해온 점이 사실이라는 점에서, 이제라도 야담 자료집들의 이본에 대한 관심을 새삼스럽게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것은 고소설이 학적 연구 대상이 된 지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실상에 근접하는 고소설 목록이 아직껏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18]을 유념할 때, 야담문학 연구에서도 이 문제는 더욱 중요한 사항이 되리라 본다.

최근 들어 공간된 兪晩柱(1755 ~ 1788)의 『欽英』은 조선 후기를 살다간 한 지식인의 다양한 독서력(讀書歷)과 사유체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를 끄는 자료라고 하겠는데, 이 자료 가운데의 다음과 같은 언명은 오늘날 우리가 이 자료에 대해 미처 알고 있지 못한 정보 - 곧 『잡기고담』 이본의 존재에 대한 - 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시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해당 원문을 적기(摘記)하면 다음과 같다.

> "燭閱『葆和雜記』義妓 嘲謔 二奇記. 分十三目曰 醫巫, 曰 奇奴, 曰 女俠, 丁時翰遇嶺南二女事也. 曰 盜宰相, 曰 宦妻, 公州村店翁婿事也. 曰 天緣, 李女耦鄭玿也. 曰 劍技, 被虜公子事也. 曰 盜隱, 曰 神劒, 曰 推數, 虛菴太史事也. 曰 發奸, 曰 義妓, 駕後親革張姓事也. 曰 嘲謔, 李禾亶事也."[19]

이를 통하여 볼 때, 유만주가 생존하던 당시만 하더라도 『葆和雜記』라는 제명의 야담 자료집이 존재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자료집은 유만주 자신의 설명으로 미루어 볼 때, 현존하는 『잡기고담』의 상권에 해당하는 것과 완전히 부합하는 면모를 지니고 있다. 총 24 항목으로 이루어진 『잡기고담』에 비하여, 『보화잡기』는 그 상권에 해당하는 13 항목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자료라는 점, 곧 하권에 해당하는 11 항목, 곧 '보은작'(報恩鵲)·'청원'(淸寃)·'간부'(姦富)·'면화'(免禍)·'침농'(寢儂)·'망인'(忘人)·'수기'(數奇)·'천보'(天報)·'곤경'(困境)·'교무'(驕武)·'담명'(談命) 등이 결락된 면모를 지니고 있다. 이것이 바로 『보화잡기』의 원 면모였는지? 아니면 우리가 오늘날 볼 수 있는 『잡기고

18) 최근 들어 간행된 조희웅선생의 『고전소설이본목록』,(집문당, 1999.12)은 이런 한계를 넘어설 단초를 보여준 업적으로 기억되어야 마땅할 것으로 여겨진다.

19) 서울대 규장각 소장, 『흠영』 6, 병오(1786)년 7월 30일조,(서울대 규장각, 1997.12.) 277쪽.

담』과 같이 2권 1책이 아니라, 『보화잡기』의 경우 애초 2권 2책으로 이루어진 자료집이었는데, 유만주가 읽던 당시에는 그 하권에 해당하는 권수가 망실된 것인지 등등에 대한 의문이 잇달아 제기된다고 하겠다. 어찌 되었든 우리는 위의 기록을 통하여 『잡기고담』이라는 야담집이 유일본이 아니었음을 아는 수확과 아울러 향후 『보화잡기』의 現傳 여부를 계속해서 탐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와같이 현전 야담집들 가운데는 그 제명만에 의거, 유일본인 것처럼 치부되어온 자료집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홈영』의 기록은 우리들 연구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하겠다.

다) 『綺里叢話』라는 자료집의 존재를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자료는 비교적 일찍 그 존재가 알려졌음[20]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21]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지닌 바 몇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야담문학 연구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아니될, 매우 주목해야 할 자료로 생각된다. 나아가 『靑邱異聞』·『叢話』·『靑邱野談』·『靑丘古談』 등의 자료집들에 상대적인 차이는 있지만 많은 영향을 끼쳤던 자료라는 점에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자료임이 확인되었다. 간략하게나마 이 자료집의 몇 특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영대본 『綺里叢話』는 그것이 바로 원 『綺里叢話』에 해당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 이유로는 연대본 『叢話』의 경우, 그 발췌본적 성격(84화 중 20화 탈락)이 짙음에도 영대본 『綺里叢話』에서 찾아지지 않는 다음 6화(<紫霞詩格>(21화)·<樂地反論>(25화)·<金生傳>(54화)·<捨大吝癖>(68화)·<發咳暗號>(69화)·<風景埋沒>(70화)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특히 이들 가운데 후 5화의 경우, 연민본 『綺里叢話』 地에도 아울러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이에 대한 좋은 방증이 된다.)과 아울러 19화인 '田家翁」의 후반부는, 이들 이본들 중 오직 연대본 『叢話』에서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등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綺里叢

20) 영남대 중앙도서관, 「장서목록 : 한적목록」, 1973.

21) 극히 최근에 들어와 임형택 선생이 「『기리총화』소재 한문단편」이라는 헤제 차원의 글과 아울러 자료집 중에서 흥미 있는 몇 편만을 추려 그 원문과 함께 번역을 제시한 바 있다. 『민족문학사연구』 11집,(민족문학사연구회, 1998.)

話』의 편찬자는 과연 누구인가? 이에 대한 단서는, 몇 내적 증거를 통하여 편자의 부친은 금구(金溝)와 삼산군(三山郡)을 맡아보던 인물이었으며, 아울러 그 장인이 함라현감(咸羅縣監)으로 있었다는 데서 드러난다. (**한편 『綺里叢話』의 원 소장자였던 東濱 金庠基박사는 책의 내지에 "本書似係綺園兪漢芝先生所撰 而特於純祖時事頗多 珍聞奇談足資太史氏之紬繹耳"(밑줄 : 필자 표시)라고 적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유한지(1760 ~ ? : 서예가, 자는 德輝, 호는 綺園))의 저술로 기술하고 있다. 이 주장의 사실 여부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밝혀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이문』이 『綺里叢話』를 거의 그대로 전재하는 가운데서도, 유달리 독자적으로 지니고 있는 문면을 주목하여 『靑邱異聞』의 편자가 누구인가 또한 알 수 있을 듯하다. 그 편자는 안동 김씨 구파에 속하는 김상용(金尙容)을 중시조로 하고 있는 가계에 속하는 인물로서 난곡 참판공(곧 金時傑 : 1653 ~ 1701)의 후손 가운데 하나로 생각된다.(그렇기는 하지만, 앞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그의 편자로서의 저술 태도는 집록적인 성향을 띤 인물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연민본 『綺里叢話』 卷之地는 零本으로 전하기는 하지만, 그 지닌 면모로 해서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족하다. 이 이본의 존재를 통하여 우리는 영대본 「綺里叢話』가 『기리총화』 완본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 영대본은 그 구체적 징표는 갖고 있지 않지만, 연민본으로부터 역으로 계상하여 본다면, 연민본의 卷之天과 卷之人에 해당하는 부분의 결집으로 보여진다. 또 나아가 소재 이야기 36화 가운데 14화나 『靑邱野談』에 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남으로 해서, 『靑邱野談』에 영향을 준 전대문헌이 구체적으로 하나 더 확인되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시해야 할 자료라 하겠다. 여러 구체적 몇몇 정황으로 보아서 『綺里叢話』의 편찬연대는 몇 가지 내적 증거로 보아 1817년 ~ 1830년 사이에 출현한 야담집으로 보여진다.[22]

이들 자료집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현재 진행중인 별고로 미루어둘까 한다.

---

22) 『기리총화』 이본군에 대한 본격적인 작업은 필자가 현재 진행 중인 바,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별고를 미루어둔다.

라) 『溪西野譚』과 『溪西雜錄』, 『記聞叢話』의 관계 양상은 야담문학의 사적 전개양상을 논의하는 과정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할 자료군이라고 하겠는데, 그 이유로는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을 듯하다. 첫째, 『기문총화』계에 드는 자료군이 다른 자료집들의 이본군에 비하여 양적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23]는 점. 둘째, 『기문총화』계에 드는 자료군은 『동패락송』계의 자료집들과 더불어 후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자료라는 점, 셋째, 이들 세 자료집의 선후 관계에 대한 정확한 해명은 우리 야담문학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밝힐 수 있는 과제라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김준형의 논문과 필자의 몇몇 논문[24]으로 미루어두고, 여기서는 그 선후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몇 기준만을 간략히 제시하는 것으로 그칠까 한다. 필자는 "야담의 간행과 전승양상"에서 『계서잡록』과 『기문총화』의 선후 관계를 첫째, 서사주인공에 대한 기술방식상의 차이. 둘째, 표현방식상의 차이. 셋째, 특정한 단어 또는 문장이 탈락되고 있다는 차이를 통해 규명한 바 있다.(그 구체적인 예문은 위의 논문으로 미룬다.) 이를 통하여 볼 때, 『기문총화』가 『계서잡록』보다 선행하여 나왔을 가능성은 결코 없음이 확인된다. 필자는 다시 "야담연구를 위한 한 제언"에서도 다시 『계서야담』이 『기문총화』에 비하여 시대적으로 뒤에 출현했다는 근거로 4 사항을 들어 증명해 보인 바 있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논문으로 미룬다.) 이런 여러 사항들을 묶어 생각할 때, 『계서야담』과 『기문총화』의 관계는 『기문총화』에서 『계서야담』으로 유전되었다는 사실은 인정될 수 있지만, 그 역은 위에서 지적한 몇 사실만에 의거하더라도 절대로 불가능한 것임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하겠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이들 야담집들이 『계서잡록』→『기문총화』→『계서야담』의 순으로 나타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25]

---

23) 김준형의 앞서 든 주 11)의 논문은 매우 광범위한 자료 섭렵 위에서 마련되었음에도, 학습원대본(2권 2책)과 국립중앙도서관본 잡동산(2권 2책) 등의 존재는 미처 취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아직까지도 소개, 발굴되지 아니한 이본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24) 앞서 든 주 5)와 11)을 참조하라.

25) 김준형 또한 앞서 든 주 11)의 논문에서 '『계서야담』은 주로 『기문총화』의 영향하에 있으면서 『계서잡록』의 이야기를 첨부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는 가운데 『계서야담』의 편찬시기는 이본이 4종(최근 들어 필자는 경도대 하합문고에도 3책본

지금까지의 검토 결과, 『계서야담』은 철저할 정도로 『계서잡록』과 『기문총화』의 범위에서 결코 자유롭게 벗어나지 아니한 자료집임이 확인되었다. 이런 『계서야담』을 두고 한때 '조선 후기의 삼대 야담집'이라고까지 하는 과도한 평가가 주어졌다는 점은 이 야담집의 야담문학에서의 위상과 상당히 괴리된, 잘못된 주장이 아닐 수 없다고 하겠다.

마) 한편 『海東野書』는 일찍이 조희웅 선생이 『조선후기문헌설화의 연구』에서 간략히 지적한 이래로 어느 누구도 이 자료가 지닌 실상에 대해 주목을 기울인 이는 없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조희웅 선생의 견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한편 『청구야담』의 발췌본으로 보이는 설화집에 『해동야서』(장서각 소장, 不分卷 1책)라는 것이 있다. 이 책에 수록된 자료는 총 48편으로 그 내용은 물론 제목까지 『청구야담』과 완전 동일하다."[26](밑줄 : 필자 표시)

『海東野書』가 그의 주장과 같이 『청구야담』의 발췌본에 불과한 자료집일까? 과연 그럴까? 검토 결과, 그의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곧 38화인 <成家業朴奴盡忠>을 통하여 그 점이 확인되는 바, 이 이야기의 경우만은 그의 지적과는 달리 우리가 알고 있는 『청구야담』의 여러 이본들의 문면과는 분명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이야기의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청구야담』의 여러 이본들이 그 원천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는 점에서 그의 주장은 실상을 도외시한 것이라 하여도 잘못된 것은 아닐 것이다. 구체적인 해당 문면은 줄인다.

바) 『靑野談藪』에 대한 우리 학계의 관심은, 서대석 선생에 의한 간략한 해제[27]와 아울러 필자의 최근 성과[28]가 이 자료집에 대한 관심의 전부라는

『계서야담』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 바, 이로써 『계서야담』은 총 5종의 이본이 있는 셈이 된다.)밖에 없다는 점과 아울러 김태준이 유독 『계서야담』에 대해서만 '근세의' 것임을 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아 1880년 이후에 편찬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필자의 이러한 견해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6) 『조선후기문헌설화의 연구』,(형설출판사,1982.) 32쪽.

27) 서대석 편, 『조선조 文獻說話 輯要』 2,(집문당,1992.) 581 ~ 589쪽.

점에서, 아직은 채 영글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서대석 선생의 간략한 해제를 먼저 제시하고, 그 오류를 지적하여 보자.

> "『청야담수』에는 가)총 201화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여타의 자료집에는 들어 있지 않은 독차적인 자료의 수효는 그리 많지 않으며, 전대의 여러 야담집들에 실려 있던 이야기들을 두루 뽑아서 재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야담수』가 모본으로 삼은 야담집들로는 『東野彙輯』·『東稗洛誦』·『溪西野譚』 등을 대표적인 것으로 꼽을 수 있다. 책 머리의 30여 화는 『동야휘집』에서 뽑은 것이며, 나) 40화부터 76화까지의 부분은 『동패락송』과 거의 그대로 일치한다. 다) 책의 『후반부』에는 『계서야담』 혹은 『記聞叢話』와 겹치는 자료들이 많이 실려 있는데, 『계서야담』의 편자인 李義平의 이야기를 재수록한 것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계서야담』을 모본으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책의 중간 부분에 독창적인 이야기들이 간혹 실려 있는데, 다른 책에서 전재한 것인지, 아니면 편자가 저술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29](가·나·다·라는 필자 표시)

위의 주장을 축조적(逐條的)으로 살펴 그 오류를 밝혀볼까 한다.

먼저 가)를 검토하여 보자. 그러나 검토 결과 동 소재 자료 가운데 41화(권 2)와 163화(권 5), 그리고 25화(권 1)와 112화(권 4)는 같은 이야기이거나 하나의 이야기 가운데 삽화의 분리에 의해 나타난 동종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결국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청야담수』 소재 이야기의 실제적 편수는 이제껏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201화가 아니라 199화라고 해야 맞다.

이어 (나)를 검토해보자. 이 주장은 우선 『동패』[30]와 『동패락송』이 다른 종류의 야담집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오류를 지적받아 마땅하다. 물론 『동패락송』의 이본 가운데는 천리대본 『동패락송』[31]과 같이 원 『동

---

28) 앞서 든 주 5)의 네 번째 논문, 「『청야담수』의 원천과 변이양상 연구」,『조선학보』 170호,(조선학회, 1999.1)

29) 서대석 편, 앞의 책. 581쪽.

30) 이 자료는 현재 연세대 도서관 소장본과 필자 소장본이 보고되어 있다. 한편 연세대 도서관 소장의 『파수록』과 김기윤 소장의 『화헌파수록』(권 1·동양문고본 『화헌파수록』(권 1·2)은 『동패』와 이본 관계에 놓이는 자료로 여겨지지만, 현재로서는 어느 자료가 선행하여 나타난 자료인지 분명히 알 수 없다.

31) 이 자료집은 김동욱 선생에 의하여 한 차례 번역된 바 있어 참조가 된다. 『국역 東稗洛誦』,(아세아문화사,1996.)이 그것인데, 그러나 이 번역본은 원 『東稗洛誦』의

패락송』의 일반적 면모[32]와 상당히 이질적인 자료들 또한 일찍이 보고된 바 있으나,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 미루어볼 때, 이는 원 『동패락송』에 비해 상당히 후대에 출현한 후대본임이 분명하다.[33] 나아가 40화에서 76화까지의 부분이 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47화에서 73화까지의 자료들은 『동패』를 원천으로 하고 있고, 74화는 『파수록』 또는 천리대본 『동패락송』 112화를 원천으로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는 점, 사실 원 『동패락송』 소재 야담은 『청야담수』의 105화 ~ 109화에 수록된 5화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 주장은 분명한 오류라 하겠다.

한편 다)의 문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류를 지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단적으로 75화 ~ 104화까지와 128·9화의 32화는 『기문총화』의 4권 소재 이야기들인 바, 이 이야기들의 경우 16종에 달하는 『계서잡록』 이본군과 3종에 달하는 『계서야담』 이본군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자료라는 점을 통해서도 바로 확인된다. 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필자의 "『청야담수』의 원천과 변이양상 연구"로 미루어둔다.

라)의 문면을 이어 살펴보기로 하자. '책의 중간 부분에 독창적인 이야기들이 간혹 실려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주장 또한 실상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언급은 여타 이야기들의 경우 그 원천 자료가 쉽게 확인되는데 비하여, 117화 ~ 124화까지의 이야기들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이 8화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듯하다. 그러나 이들 자료들은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독창적인 이야기들이 결코 아니다. 이들 이야기들은 18세기 후반의 구수훈(具樹勳)에 의해 엮어진 『二旬錄』[34]과 편자

면모로부터 상당히 벗어난 자료집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東稗洛誦』의 방사(放射) 자료로서의 한 궤적을 드러내는 자료집이라는 한정된 의미만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본다.

32) 이에 대해서는 정명기, 「『東稗洛誦』 연구」-異本의 관계양상을 중심으로,『원광한문학』4집,(원광한문학회,1991.)와 임형택의 「야담의 기록화 과정과 한문단편의 성립」-『동패락송』을 중심으로-,민족문학사연구소 제 4회 공개학술발표회,(고대 교우회관,1999.5)을 참조하라. 한편 임형택의 발표문은 뒷날 「『동패락송』연구」란 제목으로 『한국한문학연구』 23집,(한국한문학회,1999.4)에 수록되었다.

33) 필자의 바로 앞에서 든 논문 31 ~ 37쪽에서 해당 자료가 1879년 이후 출현했을 것으로 추단한 바 있다. 이 논문은 필자의 『한국야담문학연구』,(서울,보고사,1996.) 311 ~ 337쪽에 재수록되어 있다.

미상인 『破睡』[35]에 겹쳐 수록되어 있는 자료(4화가 해당)에 불과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청야담수』에 대한 연구는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한편 사소한 것이지만, 『청야담수』의 편찬 연대에 대한 오류 또한 이 자리에서 지적되어야 마땅할 듯 싶다. 서대석 선생은 위의 해제에서 『청야담수』의 편찬 연대를 '현토본이라는 형태가 구한말 이래 두드러진 기술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마도 『청야담수』의 편찬 연대는 19세기 말 내지 20세기 초로 추정될 수 있을 듯하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그 편찬 연대는 다음과 같은 문면에 의거할 때 그 상한선을 바로 잡아볼 수 있다. 곧 160화인 <數千金으로 使免官逋ᄒᆞ야 以圖寢郎一窠於其父>의 원 출전은 연대본 『기문총화』 권지이의 260화인데, 그 가운데 다음 문면을 주목해보자. "方與外國人(倭虜?)相通ᄒᆞ야 誘而入寇於朝鮮ᄒᆞ고 年〃自海上으로 運送米穀ᄒᆞ니 此一事은 可謂大罪라. ---(중략)--- 其爲締結外國(倭虜?)而運送米穀者는 莫非搆捏造語라." 곧 괄호 안의 표기가 원 『기문총화』에 실린 문면인데, 『청야담수』에서는 그것이 '外國人' 또는 '外國'이라는 표현으로 변개되어 나타난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청야담수』의 편찬 연대가 19세기 말로는 결코 소급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청야담수』의 편찬 시기의 상한선은 '일제의 탄압이 실효를 거두던 1905년 이후에는 일제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이 불용(不容)된 시기였다'는 점과 아울러 '출판물에 대한 사전 검열과 사후 검열이라는 이중의 구속 장치'로서의 성격을 띠고 일제에 의해 마련된 '신문지법(新聞紙法)' 또는 '출판법(出版法)'이 시행되기 시작한 시기가 1907년 7월·1909년 2월이라는 점[36] 등을 고려할 때, 1905년 이전으로 소급될 가능성은 없어보인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청야담수』는 '19세기 말 내지 20세기 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0

34) 이 자료의 이본으로는 『패림』 소재본만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 들어 일본 동경대학교에도 그 이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5) 이 자료는 이가원교수 소장, 1권 1책의 한문 필사본으로, 미공개의 상태로 놓여있다가 최근 필자에 의해 그 전모가 드러났다. 이 자료에 대한 간략한 해제와 아울러 그 원문이 『연민학지』 5집,(연민학회,1997.) 535 ~ 570쪽에 걸쳐 소개된 바 있다.

36) 이주영, 『구활자본 고전소설 연구』,(도서출판 월인,1998.) 41쪽 참조.

세기 초엽 경'에 이루어진 야담집으로 봐야 한다고 여겨진다. 이렇게 본다면 이 자료와 구활자본 야담집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규명하는 작업도 흥미로울 듯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고찰은 뒷날의 과제로 남겨둔다.

검토 결과 『청야담수』는 다음의 최소 8종에 달하는 원천자료의 영향 아래 나타난 자료집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것은 곧 『동야휘집』(36화)·『동패』(29화→27화[37])·『동패락송』(5화)·『파수록』(2화→1화)·『학산한언』(4화)·『이순록』(8화)·『계서잡록』('계잡'에만 출현하는 자료 2화, '계잡'과 '계야'에만 나타나는 자료 10화로 총 12화)·『기문총화』(108화) - 권 1(21화→20화.'기문'에만 나타나는 자료 1화(111화), '기문'과 '계야'에 공통으로 출현하는 자료 19화. 총 20화)·권 2(36화→35화:'기문'과 '계야'에 공통으로 출현)·권 3(21화:'기문'과 '계야'에 공통으로 출현)·권 4(32화:'기문'에만 출현) - 등으로 나누어진다.

사) 한편 마지막으로 구활자본의 형태로 간행된 여러 야담집들의 존재[38]를 통하여 이들 야담집들이 지니고 있는 몇몇 특징적 면모와 아울러 그것이 구활자본으로 양식을 달리하여 간행된 이유라든가, 또한 이들 구활자본 야담집에 나타난 변이양상 등에 대한 진지한 관심[39] 또한 아직은 촉발된 바 없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성과가 한시바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만을 지적해 두고 논의를 마칠까 한다.

---

37) 표 →는 앞 자료가 『청야담수』에 그대로 수용되지 아니하고 합성·분리되어 새로운 이야기로 나타나는 경우를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밝히면 『동패』의 3·4화가 「청야담수」의 49화로, 『동패』의 22화·23화가 『청야담수』의 61화로 합성되는 한편으로, 「동패」의 37화가 『청야담수』의 72화·73화로 분리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표 →는 다 같다.

38)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현재 필자가 집필하고 있는 "구활자본 야담집에 나타난 변이양상 연구」로 미루어두고, 여기서는 다만 그 제명만을 제시하여 편의에 이바지할까 한다. 『奇人奇事錄』·『大東奇聞』·『東廂記纂』·『拍案驚奇』·『조선야담집』·『청구기담』·『靑野彙編』 권 상·『오백년기담』·『실사총담』 등이 그것이다.

39) 이에 대한 관심은 임형택, 「야담 전통의 근대적 변모」,한국한문학 전국발표대회 발표 요지,1995.4와 그 개고 논문인 「야담의 근대적 변모」-일제하에서 야담전통의 계승양상-,『한국한문학연구』 학회창립 20주년 기념 특집호,(한국한문학회,1996.)에서 촉발된 바 있으나, 이들 자료의 구체적인 성격에 대한 논의는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껏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앞에서 몇 종의 자료집을 두고 전개되었던 기왕의 주장에서 드러나는 오류에 대한 필자의 지적은 그간 선학들이 애써 쌓아놓았던 야담연구의 소중한 성과들을 일언지하(一言之下)에 부정하자는 주장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단지 이러한 오류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선학들의 고충을 이해하는 가운데 이제까지와는 달리, 한 단계 진전한 보다 높은 수준의 야담문학 연구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라도 우리 야담문학 연구자들이 그 기본이 되는 야담 자료집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지극히 당위적이기까지 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데 불과한 성격을 지닌다고 하겠다.

3. 야담집 주해·번역의 문제점

뜻있는 몇몇 야담연구자들에 의하여 몇 종의 야담집이 주해·번역의 형태로 나타난 바[40]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연구실 안에만 갇혀 있던 '화석화한 고전

40) 현재까지 이루어진 야담집의 번역 상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권영대외 역,『조선왕조 오백년의 선비정신』,(=『대동기문』1,(화산문화,1995.)
권영대외 역,『조선왕조 오백년의 선비정신』,(=『대동기문』2,(화산문화,1996.)
김동욱 1,『단편소설선』,(교문사,1976.)
김동욱·정명기 교주,『靑邱野談』 上·下,(교문사,1996.)
김동욱 2,『天倪錄』,(명문당,1995.)
김동욱 2,『국역 東稗洛誦』,(아세아문화사,1996.)
김동욱 2,『국역 記聞叢話』1~ 5,(아세아문화사,1996~9.)
김동주,『설화문학총서』 1~ 5,(전통문화연구회,1997.)
1 권 :「밤은 달아 수놓은 베개를 엿보지 말아다오」
2 권 :「밤바람아 무슨 일로 비단 휘장을 걷느냐」
3 권 :「매화는 피리소리에 취하여 향기롭구나」
4 권 :「사립문 앞에서 친구를 맞아오네」
5 권 :「남아가 한번 눈물을 훔친 뜻은」
김세민 편역,『파수편』,(조선고전문학선집 79,평양문예출판사,1990.) (태학사,1994.5월 影印 再刊)
김영일역,『韓國奇人列傳』,(을유문화사,1969)
김종권 교주·송정민외 역,『錦溪筆談』,(명문당,1985.)
이민수,『溪西野談·於于野談』,(명문당,1992.)
이민수,『於于野談』,(정음사,1987.)

문학 유산'을 연구실 밖으로 끌어내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들 주해·번역본들은 이러한 가치 부여 못지 않게 몇 가지 점에서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몇 가지로 나누어 그 문제점과 개선책을 간략히 제시해 둘까 한다.

첫째, 한 자료집에 속하는 많은 이본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가능한한 많은 자료들의 수합, 검토를 통한 해당 자료집의 교감 작업을 마무리지은 뒤, 재구되는 정본(定本)을 밑바탕으로 한 주해·번역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일례로 『계서잡록』의 경우를 들어 설명해 보자. 16종의 이본이 전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이들 『계서잡록』 이본군은 이제껏의 언급에서 전혀 밝혀진 바 없었지만, 다음의 세 계열로 나누어 전승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 근거는 <李思覩이야기>와 <扶安妓 桂生이야기>의 자료집 내에서의 귀속 여부에 있다. 그것을 알기 쉽게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계열 = 원 『溪西雜錄』

성대본(권지일)·연대 1본(권지이: 국도 2본·연민본 卷之亨·연대 2본·일몽본)·연민본 卷之利(권지삼)·저초본(권지사: 일사본·가람 2본·유재영본·장서각

이병기,『於于野譚』,(국제문화관,1949.)
이상진 역,『里鄕見聞錄』 상·하, (자유문고,1996.)
이석호 역,『한국기인전·청학집』,(명문당,1990.) * 『한국기인전』=『華軒罷睡錄』.
이신성외 역,『버들잎에 띄운 사랑』,(보고사,1994.)
이신성외 역,『양은천미』,(보고사,2000.)
이우성.임형택 譯,『李朝漢文短篇集』,上·中·下,(일조각,1973.1978.)
이월영외 역,『靑邱野談』,(한국문화사,1995.)
이월영외 역,『어우야담』,(한국문화사,1996.)
주병도외 역,『조선야담집』1,(사회과학출판사,1995.)→(한국문화사,1996.)
최 웅외,『주해 청구야담』 상·중·하,(국학자료원,1996.)
홍기문외 편,『패설작품선집』,(한국고전문학선집 10·11권,국립문학예술서적출판사,1959.)

본)

2) 계열 : 가람 1본·조동필본(* 李思觀이야기)
(전부 전재) (발췌 전재) ⇑
: 1 계열의 나)·다)와 관련 ⇒⇒

3) 계열 : 국도 1본·고대본(* 扶安妓 桂生이야기)
(발췌 전재) (발췌 전재·보유)
: 1 계열의 나)·다)·라)와 관련

둘째, 이러한 작업이 불가능한 자료집(곧 유일본의 형태로 전하는 자료집을 말한다)의 경우, 해당 자료집이 우리 야담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상 등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검토된 뒤에 그 주해·번역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례로 『쇄어』·『성수총화』·『선언편』 등을 들어 설명하여 보자. 이들 세 자료 가운데 오직 『선언편』을 제외하고서는 현재까지는 유일본으로 알려진 자료집들인데, 이들 세 자료집은 언뜻 보면 『기문총화』계열에 속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실려 전하는 대다수의 이야기들이 『기문총화』의 것과 겹친다는 점에서 이점은 일면 타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세 자료에 공통되게 나타나고 있는 <조생과 도우탄(屠牛坦)의 딸 이야기>[41]의 경우, 원 『기문총화』에 수재된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들 세 자료집의 야담문학사에서의 위상은 어떠한지를 보다 정확히 궁구한 뒤, 나름의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원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 아래 주해·번역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례로 『청구야담』을 들어 설명하여 보자. 『청구야담』의 경우, 필자를 포함하여 최웅 선생외·이월영 선생외에 의한 주해·번역 작업이 이루어져, 일견 야담집들 가운데서 가장 활발히 그 번역 작업이 이루어진 야담집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루어진 성과는 우리들의 기대치에 훨씬 못치는 것임을 부인할

41) <조생과 도우탄(屠牛坦)의 딸 이야기>에 대한 연구성과로는 이신성의 이신성, 「<金英郎이야기>에 나타난 신분상승의 실현과 그 의미」, 『어문학』55집,(한국어문학회,1994.5)와 정명기,「<趙生 - 屠牛坦의 딸> 이야기의 의미 연구」,『열상고전연구』8집,(열상고전연구회,1995)를 참조하라.

수는 없다고 본다. 이월영 선생외의 작업은 그 대본으로 국립중앙도서관본을 택하였고(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이본과 대비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큼 제대로 구현되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필자와 최웅 선생외는 규장각본을 대상으로 택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드러낸다. 논의의 편의상 필자와 최웅외의 것을 대비, 검토하여 보면 양자 사이에서 흥미로운 차이을 찾아볼 수 있다. 곧 전자의 경우, 규장각본의 면모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한문본과의 교합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그 주해 작업을 시도하고 있는 반면에, 후자의 경우, 그 대본으로 삼은 규장각본만을 충실히(?) 교주하고 있는 차이를 드러낸다. 이는 연구자의 자료집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온전히 드러난 것이라고 하겠는데,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원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여기서 이해란 해당 자료에 대한 띄어쓰기, 또는 특정 단어에 대한 정확한 해독을 말한다.)가 결여된(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분량 관계로 생략한다.) 채로 주해·번역이 이루어져서는 그 작업으로부터 얻어낼 이득보다는 차라리 해독이 더 큰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조차 금할 수 없는 바, 이런 점에서도 자료집에 대한 '꼼꼼한 자료 읽기'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

4. 맺는 말

앞에서 필자는 몇 가지 야담집으로 국한하여 야담연구에서의 꼼꼼한 자료 읽기가 얼마나 절실히 요청되는가 하는 문제를 간략히 검토해 보았다. 이러한 문제 제기가 반향없는 필자만의 일방적인 외침에 그쳐서는 야담문학 연구의 진정한 도약은 요원한 일이 아닐까?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비록 품이 많이 드는 데 비하여 그 수확은 보잘 것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들 야담연구자들은 야담 자료집에 대한 궁극적인 관심이 결여된 채로 이루어낸 성과들이 우리 연구자들에게 가져다줄 신기루적인 매력에 함몰되지 말고 자료집에 대한 '꼼꼼한 자료 읽기'를 통하여 야담연구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겠다는 나름의 사명감을 지닐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런 자각 위에서 마련될 성과

가 결국 우리 야담문학 연구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사항을 과연 필자만의 쓸데없는 바람이라고만 치부할 수 있을까? 치부해도 좋을까?

참고자료 野談 資料 目錄

1. 鷄山談藪(유일본)
2. 溪西野譚(5종) : 천리대본(4권 4책)·규장각본(6권 6책)·연대본(5권 5책 가운데 1권 缺)·간송미술관본(1책)·경도대 하합문고본(3책)
3. 溪西雜錄(16종) : 성균관대본(권지일)·연민본(卷之亨·卷之利:현 단국대 도서관본)·저초본(권지사)·유재영본(단권)·일몽본(단권)·고대본(권지일·권지이·보유)·연대 1본(권지이)·연대 2본(33장본)·국도 1본(권지2)·국도 2본(2권 2책)·야록(조동필본)·일사본(권지사)·가람 1본·가람 2본·장서각본·중앙공무원교육원본
4. 鷄鳴漫錄(유일본)
5. 公私見聞錄(다종) : 연대본(4권 4책)·서울대본(2권 2책)·권영철본 외 다수 ⇒『한거만록』(서울대본)
6. 錦溪筆談(17종) : 국도 1본·국도 2본(일명:좌해일사)·고대본·연민본·전남대본(1책)·정문연 1본·정문연 2본(하성문고본)·가람본·연대 1본(2권 2책)·연대 2본(1권:완본)·유재영본·상백본·서울대본·공무원교육원본·이능우본··국회도서관본(2권 2책)·임형택본
7. 奇觀(유일본) : 서울대본. 1화부터 27화까지의 출전은 현재 미확인. 28화부터 61화까지는 『동패락송』을 전재.
8. 綺里叢話(2종) : 연민본 卷之地·영남대 동빈문고본. ⇒『叢話』(연대본)·『靑邱異聞』(모처 소장본)·『靑邱古談』(숭실대본)
9. 記聞叢話(23종) : 연대 1본(권지일·권지이·권지삼·권지사)·연대 2본(54장본)·국도 1본(기문총화초)·국도 2본(권지일·권지이)·장서각본(1권 1책)·영남대 동빈문고본(2권 2책 가운데 하권)·동양문고 1본·동양문고 2본·임

형택본(1권 1책)·가람본(2권 2책)·학습원대본(2권 2책)·정문연본(기화:1권 1책)·연대 3본(기문총기:51장본)·국편위본(1권 1책)·
⇒해동기화(국도본·고대본 권 상)·청구총화·동국쇄담(이상 천리대본)·청구기화(저초본)·남계야담(서울대본)·아동기문(가람본)·하담만록(천리대본)·동국고사(서울대본:3권 3책 가운데 권지일·권지이)·雜東散(국도본 2권 2책:기문총화 '권지이'에 해당)

10. 記聞拾遺 : 동경대 아가와문고본.
11. 奇人奇事錄(구활자본) : 宋勿齋, 문창사, 1921.
12. 南溪野談(유일본) : 서울대본. ⇒『기문총화』.
13. 大東奇聞(구활자본) :
14. 東國故辭(유일본) : 서울대본(3권 3책) ⇒1권·2권은 『기문총화』계, 3권은 『破睡錄』임.
15. 東國瑣談(유일본) : 천리대본. ⇒『기문총화』.
16. 동국쇄언(유일본) : 영남대본.(소장처에 문의 결과 미소장 상태로 파악.)
17. 東國稗史(유일본) : 영남대본. ⇒『동패락송』계.
18. 東廂記纂(구활자본) : 한남서림,1918년(현토체,김신부부전 및 전래 야담집 수록), 연민본·고대본.
19. 東野彙輯(15종) : 대판중지도도서관본·연대 1본(6권 3책)·연대 2본(1권 1책)·서울대 1본(16권 8책)·서울대 2본(5책)·서울대 3본(6권 3책)·성대본(8권 4책)·숙대본(1책)·국도 1본(8권 8책)·국도 2본(2책)·김상기본(1책)·정문연본(하성문고본:8권 8책)·천리대본(8권 8책)·경북대 유인본(16권 8책)
20. 東稗(2종) : 연대본·저초본
21. 東稗洛誦(13종) : 연대본·이대본(권지이)·임형택본(권지이)·동양문고본·천리대본·국역본(나손본)·국도본·아단본
⇒『청구야담』(소창진평본 권지일·권지오)·『기문총화』(가람본)·『청야담수』(가람본)·『동국패사』(영남대본)·기관(서울대본)중 일부.
22. 亡洋錄 : 이광정,목판본.
23. 梅翁閑錄(多種) : 천리대본(2권 2책)외 다수·
24. 樸素村話(2종) : 가람본(3책)·연대본(1책)

25. 拍案驚奇(구활자본) : 박건회저,대창서원·보급서원,1924. ⇒『조선야담집』, (영창서관 편집부찬,1928)
26. 雪橋漫錄(유일본) : 약 20화. 동양문고본(5권 5책).
27. 選諺篇(2종) : 장서각본·규장각본. ⇒『쇄어』
28. 醒睡叢話(유일본) : 연민본(2권 2책)
29. 瑣語(유일본) : 연대본.
30. 消閑細說(유일본) : 나손본.
31. 我東奇聞(유일본) : 가람본. ⇒『기문총화』
32. 揚隱闡微(유일본) : 나손본.
33. 於于野譚(33종) : 동양문고본(2권 2책)·국도 1본(야담 1책)·천리대 1·2·3본(3책·2책·1책·보유)·국도 2본·대판중지도도서관본(동화:1책)·연대 1본(4책)·서울대 일사문고1본·2본·3본(3책·2책·1책)·가람본(1책)·낙선재본(2권 1책)·장서각본(2권 2책)·규장각본(1책)·이수봉본(2책)·국도 위창본(1책)·시화총림본·서울대 고도서본(1책)·영남대 1본(2책)·영남대 동빈문고본(1책)·영남대 도남문고본·이능우본·간송 1·2본·아사미본(1책)·동경대 아가와본(3책)·고대 3본(1책·1책·1책)·계명대본(1책)·기독교박물관본(3책)·경도대 가와이문고본(3책)
34. 二旬錄(2종) : 패림본(상·하)·동경대 아가와문고본(건·곤).
35. 里鄕見聞錄
36. 逸士遺事(구활자본)
37. 雜記古談(일명:난실만필,파적록) : 천리대본(2권 2책).⇒『보화잡기』.
38. 雜東散(유일본) : 국도본(2권 2책). ⇒『기문총화』.
39. 左溪裒談(다종) : 장서각본·국도본(3권 3책)외 다수.
40. 此山筆談(유일본) : 서울대본(2권 2책).
41. 天倪錄(6종) : 천리대본·김영복본·어우야담본(천리대본)·해동이적(버클리대 아사미본)·동패 소재 동패추록(연대·저초본)
42. 靑邱古談(유일본) : 숭실대 기독교박물관본. ⇒『기리총화』계.
43. 청구기담(구활자본) : 정문연본,박건회저,조선서관,대정 원년. ⇒『박안경기』
44. 靑邱奇話(유일본) : 저초본(권지사). ⇒『기문총화』.

45. 靑邱野談(15종) : 버클리대본(10권 10책)·동양문고본(8권 8책)·동경대본(7권 7책)·서울대 고도서본(5권 5책)·국도본(6권 6책)·고대본(6권 6책)·영남대 도남 1본·2본(6권 6책, 1책)·성균관대본(6권 6책)·일사본(1책)·가람 1본·2본(3책, 1책)·김근수본(1책)·규장각본(19권 19책)·경도대 가와이문고본(8책)
⇒청구야설(국도본)·청야휘편(구활자본)·파수편(동양문고본:2권 2책)·해동야서(장서각본)
46. 靑邱野說(유일본) : 국도본. ⇒『청구야담』.
47. 靑邱異聞(유일본) : 모처 소장본.卷之四. ⇒『기리총화』.
48. 靑邱叢話(유일본) : 천리대본. ⇒『기문총화』.
49. 靑野談藪(6권 6책) : 가람본.
50. 靑野彙編 권 상(구활자본) : 임형택본,회동서관본,1913. ⇒『청구야담』.
51. 別本 叢話(유일본) : 연대본. ⇒『기리총화』.
52. 叢話 : 천리대본. ⇒『기문총화』.
53. 破睡(유일본) : 연민본.
54. 罷睡錄(多種) : 연대본외 다수.
55. 破睡錄(多種) ~ 罷睡錄(일명:野談奇聞⇒천리대본의 경우) : 서울대본(김연파수록)·서울대 동국고사본·천리대본·고대본·고금소총본등.
56. 破睡篇(2권 2책) : 동양문고본 ⇒『청구야담』
57. 파수편(2권 2책) : 버클리대본 아사미본.⇒『동패락송』. 그 가운데 '고담(古談)'으로 묶인 부분은 주의를 요함.
58. 荷潭漫錄 : 천리대본. ⇒『기문총화』
59. 하담파적록(다종) : 정문연본(구장서각본)외 다수.
60. 鶴山閑言(2종) : 장서각본·동경대 아가와문고본(학산한언초략).
61. 閑居漫錄 : 천리대본.
62. 海東野言 : 장서각본. ⇒『청구야담』
63. 華軒罷睡錄(2종) : 김기윤본·동양문고본(2권 2책)
64. 오백년기담(구활자본) : 최동주찬, 개유문관본. 대정 2년(1913년).
65. 실사총담(구활자본) : 최영년, 조선문예사, 대정 7년(1918).

Abstract

The Problem of Yadam Materrials Study

Chung Myung-Kee

This paper purposes that how important that reading detail materrials in studying of Yadam. Preferentially, we need a preparation and an examination for conquering of studying and making the foundation of Yadam to overcome identity of Yadam study. In this paper, I examine the concrete aspect with Chunyerok · Japkikodam · Kirichongwha · Keseojaprok (Kimunchongwha · Keseoyadam) · Hedongyaseo · Chungyadamsu, and I also study the problems which are the translation and annotationof a collection of Yadam. We have to consider three ways about the translation of a collection of Yadam and making annotation. First, we have to choose the best variant text. Second, we have to consider the value of relevant materrials when we translate. Third, we need to understand correctly about the original text.

Even though it is so hare to read that reading materrials very detail and the compensations too small, the studying of Yadam very detail has to be accomplished because it is, extremely, the foundation of studying of Yadam. I believe firmlyt that study level of Yadam will be raised by this paper.